

金13 銀8 銅7 ... '팀 코리아'와 함께 행복했던 16일



“굿바이 런던” 2012 런던올림픽 폐막식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벌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영국 음악의 향연(a symphony of British music)’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 선수단은 금 13개·은 8개·동 7개(총 28개)로 종합 5위에 올라 역대 원정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양학선·최은숙 선수

서구청서 격려금 준다

광주시 서구청이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와 최은숙 선수에게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서구는 13일 “런던올림픽 기적 제조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에게 300만원, 펜싱 에페 여자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최은숙 선수에게 5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구청 펜싱팀에 소속된 최 선수는 특별승급 규정에 따라 2호봉 연봉이 인상되고 1년간 매달 20만 원씩 입상수당을 받게 됐다. 양 선수는 서구 양동 출신이고, 최 선수는 지난 2004년부터 서구청 소속 펜싱팀에서 선수생활을 해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국·북한·중국 가장 성공

AFP, 런던올림픽 평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낸 참가국은 한국과 북한, 중국이라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남북한이 런던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China, Korea are big winners in London)”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올림픽 초강대국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입증했고 남북한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톱10’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북한은 최근 20년 사이 최고 성적인 20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양궁 종목의 금메달 4개 중 3개를 휩쓸고 사격(금메달 3개), 유도, 펜싱(이상 금메달 2개)에서 선전을 펼쳤다고 통신은 전했다. 덕분에 한국은 당초 목표인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 10위 이내)을 가볍게 넘어 종합 5위에 오를 수 있었다. 북한도 역도와 유도에서 금메달 4개를 차지해 국제무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중국은 4년 전 베이징올림픽 종합 1위에서 이번 올림픽 2위로 한 계단 내려왔지만 원정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려 미국과 세계 스포츠의 양강 구도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달밭인 다이빙, 배드민턴, 탁구에서 금메달을 거의 싹쓸이한 것은 물론 수영에서도 송양, 예스원 등 신예들을 앞세워 신종 강호로 부상했다. /연합뉴스

폐막식 ‘영국 음악의 향연’ 한마당 ... 펠레 깜짝 등장

열전 영상 신아람 눈물 소개 ... 송대남 한국 기수로



2012년 지구촌의 여름밤을 밝혔던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졌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성대한 막을 올렸던 2012 런던올림픽이 12일 영국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폐막식의 첫 무대는 신에 가수 에밀리 산데가 장식했다. 에밀리 산데가 ‘리드 올 어바웃 잇(Read All About It)’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닦은 폐막식 영상이

16일간의 열전을 담아냈다. 여자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오심에 눈물을 흘렸던 신아람의 모습도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또 킨, 조지 마이클, 스파이스 걸스, 뮤즈 등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수들이 총출동해 ‘영국 음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4년 뒤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브라질을 대표해 ‘축구 황제’ 펠레가 등장해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올림픽 뉘앙스’로 유도 남자 90kg에서 금

메달을 목에 건 송대남이 한국 선수단 폐막식 기수로 나섰다.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10-10’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사격(3개)과 양궁(3개), 유도와 펜싱(이상 2개), 체조·레슬링·태권도(이상 1개)에서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운 대회 최다 금메달 기록과 타이 기록이다. 또 대회 마지막 날 열린 복싱 남자 60kg급

결승에서 한순찰이 은메달을 더하면서 한국의 최종 메달은 금 13, 은 8, 동 7. 종합순위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북한 역시 4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물을 이뤘다.

종합 1위는 미국에게 돌아갔다. 미국은 금메달 46개를 획득해 38개의 중국을 꺾고 지난 베이징대회에서 내주었던 종합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폐자재 등을 활용한 경기장 건립 등으로 그린 올림픽으로 호평을 받은 런던 올림픽은 여성 스포츠 역사에 새 장을 열기도 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가 사상 최초로 여자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켰고, 여성 복싱도 올림픽 무대에 첫 선을 보였다. 한편 제31회 하계 올림픽은 201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축구 동메달 주역 기성용

■ ‘주가 폭등’ 태극전사들 거취 관심 배구 김연경 이적갈등 풀고 날까 축구 기성용 빅리그로 진출할 듯



여자배구 MVP 김연경

런던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펼쳐 주가가 폭등한 해외진출 선수들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부시게 주가를 올린 선수는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4·흥국생명)이다. 대회 MVP 김연경은 런던올림픽에서 총 207점을 몰아쳐 득점왕이 됐고 공격성공률에서도 37.93%를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임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연경은 귀국과 동시에 원소속

구단인 흥국생명과 해외 이적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일 수 있는 처지다. 김연경은 올림픽 직전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했다고 발표했으나 흥국생명이 원소속 구단의 승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36년만에 여자 배구를 4강으로 견인하며 글로벌 스타로 국위를 선양한 김연경의 활약상이 난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빅리그 클럽으로 이적을 타진하는 축구 대표팀의 핵심요원 기성용(23·셀틱)도 울

림픽을 통해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선수로 꼽힌다. 기성용은 동메달결정전까지 6경기를 모두 중앙 미드필더로서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한국 축구의 품격을 높인 선수로 평가된다. 정확한 패스와 슈팅,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체력, 볼을 소유하는 기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 등이 이번 대회 출전자들 가운데 정상급으로 분류된다. 기성용은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병역 문제가 해결돼 이적료와 연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아스널, 맨체스터시티, 퀸스파크 레인저스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

메라리가 등지의 구단에서도 러브콜을 보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스트라이커 박주영(27·아스널)도 올림픽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소속 클럽 내의 입지 확대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데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아스널에 입단했으나 그라운드를 거의 밟지 못했던 박주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고배에서 두 곱을 터뜨려 한국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특히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능략하고 결승골을 터뜨려 정상급 해결사의 면모를 뽐냈다. 잉글랜드 언론에서는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이 박주영에게 사실상 퇴출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박주영이 만여준 해결 능력이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은 만큼 벵거 감독의 생각이나 다른 구단들의 관심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